

추석 가정 예배 순서

인도 가족 중에 교회 직분자 또는 웃어른

묵상기도 다 갈 이

찬 송 찬송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다 갈 이

1.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 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 범한 영혼 구하러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2.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의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3.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후렴)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 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기도 가족 중

말씀봉독 민수기 6장 24~26절..... 인 도 자

- 24 여호와와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 25 여호와와 그의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 26 여호와와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말 씀 하나님의 복을 받는 가정..... 인 도 자

오늘 말씀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지 알려 주신 말씀입니다. 당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고 있던 광야는 척박하고 위험한 땅으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마실 물도 찾기 어렵고, 먹을 열매나 곡식을 얻을 수도 없으며, 독이 있는 불땀이나 전갈 같은 것들이 도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날의 우리 역시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도처에 사고와 테러, 천재지변 등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시면 마음 편히 살아갈 수가 없는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입니다. 세 가지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1. 지켜주시는 복이 있습니다(24절). “여호와와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먼저, 지켜주시는 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광야 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 주셨듯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 된 우리 가정을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건강을 지켜 주셔야 건강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물질도 지켜주셔야 생활에 어려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정과 일터를 지켜주셔야 행복할 수 있습니다. 옛 속담에 “지키는 사람 열 있어도 도적 한 놈을 못 당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께서 지켜주심으로 오늘 우리 가족은 이렇게 추석명절을 맞이하여 감사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2.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25절). “여호와는 그 얼굴로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은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어린 아이는 부모님의 보살핌 주시는 은혜 속에 성장하고, 소년이 되어서는 스승의 은혜 속에 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인생 전반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주셨습니다. 독생자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기까지 사랑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로 영혼과 육신의 생명을 누리며 이 환난과 고통 많은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의 노력과 수고, 능력 등의 어떠한을 뛰어넘는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살아갈 것입니다.

3. 평강을 주십니다(26절).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은 평강을 주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광야에서 지내던 이스라엘 백성은 편히 쉴만한 곳이 없었습니다. 오늘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우리의 참된 평강은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이 가능합니다. 평강이란 마음이 평온하고 안정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있으면 환경을 뛰어넘는 평온함과 안정감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일 년 동안 우리 온 가족들을 평강 가운데 지켜주셨으니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의 복을 받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그 평강을 누리며 하나님의 말씀 따라 형제간에 화목하게 지내며, 부모님께 효도를 다하는 자녀가 되고, 온 가족이 주 하나님을 잘 섬기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온 가족은 추석 명절을 맞아 한 해 동안 지켜주시고 복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지켜주심과 은혜 베풀어주시, 평강 주심을 믿고 받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찬 송찬송 384장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다 갈 이**

1.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2.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갈하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3.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나라 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기 도 **가정을 위해 함께 기도하고 인도자의 기도로 마무리**

주기도문 **다 갈 이**